

2026 신한대학교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시 : 2026.09.04.(금) 18:30

장소 : 벤엘관 대강당

☐ 안건

1. 2026학년도 총학생회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2. 2026학년도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예·결산안 보고
3. 2026학년도 경영대학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4. 2026학년도 공과대학 예·결산안 보고
5. 2026학년도 디자인예술대학 예·결산안 보고
6. 2026학년도 보건대학 예·결산안 보고
7. 2026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예·결산안 보고
8. 2026학년도 태권도·체육대학 예·결산안 보고
9. 2026학년도 동아리연합회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10.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 심의 및 의결
11. 감사운영세칙 일부 개정 심의 및 의결
12. 감사운영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보고
13. 기타 안건

☐ 식순

1. 개회

2. 2026학년도 총학생회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3. 2026학년도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예·결산안 보고
4. 2026학년도 경영대학 예·결산안 보고
5. 2026학년도 공과대학 예·결산안 보고
6. 2026학년도 디자인예술대학 예·결산안 보고
7. 2026학년도 보건대학 예·결산안 보고
8. 2026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예·결산안 보고
9. 2026학년도 태권도·체육대학 예·결산안 보고
10. 2026학년도 동아리연합회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11.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 심의 및 의결
12. 감사운영세칙 일부 개정 심의 및 의결
13. 감사운영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보고
14. 기타 안건
15. 폐회

I. 개회

1) 개회일시

-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6년 9월 4일 금요일 18:35 개회.

2) 성원 점검

- 재적인원: 352명
- 참석인원: 294명

→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총학생회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개회.

Ⅱ. 2026학년도 총학생회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총학생회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 (1) 1학기 이월금: ₩7,738,182
- (2) 학생회비
 - 총학생회비 납부: ₩35,000*197
 - 총학생회비 납부: ₩10,000
 - 총학생회비 이중납부: ₩35,000*2
- (3) 기타수익금
 - 프로모션: ₩550,000
- (4) 학생회 캠프 참가비
 - 학생회 캠프 간담회 식비 및 주류비: ₩10,000*57
- (5) 총 합계: ₩8,095,000

■ 지출

- (1) 학생회 캠프
 - 현수막: ₩14,900
 - 학생회 캠프 간담회 식비 및 주류비: ₩10,000*53
 - 학생회 캠프 지원금: ₩460,000
 - 총액: ₩1,007,900
- (2) 배당금
 - 경영대학(심서현): ₩1,449,811
 - 공과대학(장우준): ₩1,685,405
 - 디자인예술대학(홍다희): ₩1,386,381
 - 보건대학(고다은): ₩2,283,452
 - 사회과학대학(한예나): ₩1,730,712
 - 태권도·체육대학(우예준): ₩1,223,278
 - 동아리연합회(경세은): ₩2,210,961
- (3) 환불

- 총학생회비 이중납부로 인한 환불: ₩1,449,811
- 학생회 캠프 불참으로 인한 환불: ₩2,210,961

(4) 소모품비

- 쓰레기봉투, 100개, 100L: ₩22,000

(5) 총 합계: ₩13,109,900

(6) 잔액: ₩10,212,483

2) 2026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1) 하계방학 이월금: ₩10,212,483

(2) 2026 신한대동제 [CODE : BLUE]

- 현수막: ₩14,900
- 배송비: ₩3,000
- 디지털팔찌: ₩78,000*2
- 쓰레기 비닐봉투, 100L, 100개: ₩11,690*4
- 청테이프, 20개: ₩39,600
- 박스테이프, 40개: ₩38,890
- [신세계 상품권 교환권] 5만 원권: ₩50,000
- [배달의 민족] 3만 원권: ₩30,000
- [올리브영] 2만 원권: ₩20,000
- [스타벅스] 3만 원권: ₩30,000*3
- [스타벅스] 1만 원권: ₩10,000*10
- [배달의 민족] 1만 원권: ₩10,000*10
- 마네쿠 식사 상품권: ₩40,000*5
- 건전지 AA, 24입: ₩15,900

(3) 예비비: ₩90,505

(4) 총 합계: ₩995,555

(5) 잔액: ₩9,216,928

3) 예·결산안 심의·의결

(1) 찬성: 270명

(2) 반대: 0명

(3) 기권: 0명

→ 만장일치로 가결.

Ⅲ. 2026학년도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예·결산안 보고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1) 6월 이월금: ₩1,197,788

(2) 이자 수익

- 토스 이자(7월): ₩846

- 토스 이자(8월): ₩856

(3) 총 합계: ₩1,702

■ 지출

(1)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 월간 결제(7월~8월): ₩14,900*2

(2) 총 합계: ₩29,800

(3) 잔액: ₩1,169,690

2) 2026학년도 2학기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1) 9월 이월금: ₩1,169,690

(2) 복지물품 대여사업

- 생리대 날개형 중형, 16개입, 10개: ₩22,900

- 활명수 가스할 농축액, 48개: ₩36,450

- 타이레놀 30정: ₩7,500*2

- 총액: ₩74,440

(3)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 월간 결제(9월~12월): ₩14,900*4
- 총액: ₩59,600
- (4) 예비비: ₩13,404
- (5) 총 합계: ₩147,444
- (6) 잔액: ₩1,022,246

IV. 2026학년도 경영대학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경영대학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 (1) 6월 이월금: ₩1,708,043
- (2) 이자수익
 - 입출금통장 이자(6월): ₩136
 - 입출금통장 이자(7월): ₩222
 - 입출금통장 이자(8월): ₩278
 - 통장 이자: ₩45
- (3) 배당금
 - 총학생회비 배당금: ₩1,449,811
- (4) 캐시백 수익
 - 카드 캐시백: ₩500
 - 프렌즈 체크카드 캐시백(8월): ₩60
- (5) 종강파티 참여비
 - 종강파티 잔액: ₩233,360
- (6) 총 합계: ₩1,684,412

■ 지출

- (1)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7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8월): ₩14,900
- 총액: ₩29,800

(2) 연합 봉사 간식비

- 카프리션 3종, 오렌지망고 20개, 사과 10개: ₩21,750
- 달광도넛 맛별세트, 30개: ₩22,900
- 총액: ₩44,650

(3) 총 합계: ₩74,450

(4) 잔액: : ₩3,318,005

2) 2026학년도 2학기 경영대학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1) 8월 이월금: ₩3,318,005

(2)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 ₩14,900*4
- 총액: ₩59,600

(3) 뽀빠로데이 이벤트

- 뽀빠로 아몬드, 30개: ₩34,060
- 뽀빠로 초코, 30개: ₩34,780
- 뽀빠로 크런키, 20개: ₩22,060
- 총액: ₩120,160

(4) 중간고사 이벤트

- 몬스터에너지 그린, 48개: ₩63,400
- 몬스터에너지 울트라, 48개: ₩61,600
- 간식꾸러미 할로윈 선물 세트: ₩3,200*30
- 배송비: ₩3,000
- 총액: ₩224,000

(5) 복지물품

- 몬스터에너지 그린, 48개: ₩63,400
- 스피디 도킹 보조배터리 (8핀): ₩6,900
- 스피디 도킹 보조배터리 (C타입): ₩6,900
- 가그린 오리지널 스틱형: ₩11,110

- 화이트 생리대 날개형: ₩12,000*2
- 바운드식 필기구 16종 펜슬박스 중성펜 네오라이트 문구: ₩10,890*2
- 일회용 밴드, 110매(혼합형): ₩2,000
- 25w 초고속충전기: ₩5,000*3
- 27w 1.0m 8핀 케이블: ₩2,000
- 스피자임, 20정: ₩5,000
- 타이레놀 500, 10정: ₩3,000*2
- 총액: ₩100,690

(6) 연합풋살대회

- 연합풋살대회 운영지원금: ₩350,000
- 총액: ₩350,000

(7) 대동제

- 레몬즙 1L: ₩6,980
- 할라피뇨 슬라이스, 1캔: ₩9,760
- 양파 슬라이스 1kg 2개: ₩6,400
- 나초치즈소스, 3개: ₩27,400
- 사워크림소스, 3개: ₩25,080
- 불닭마요소스, 2개: ₩45,970
- 토마토, 5kg: ₩20,500
- 토마토, 2.5kg: ₩20,000
- 도리토스 나초치즈맛, 36개: ₩34,260
- 오리온 스윙칩 볶음고추장맛, 40개: ₩42,800
- 오리온 오감자 그라탕 스낵, 48개: ₩48,280
- 한돈 뒷다리 다짐육: ₩8,300*12
- 일회용 숟가락, 200개입: ₩8,990
- 총액: ₩396,020

(8) 예비비: ₩125,047

(9) 총 합계: ₩1,375,517

(10) 잔액: ₩1,942,488

3) 예·결산안 심의·의결

(1) 찬성: 272명

(2) 반대: 0명

(3) 기권: 0명

→ 만장일치로 가결.

V. 2026학년도 공과대학 예·결산안 보고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공과대학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1) 6월 이월금: ₩1,679,119

(2) 배당금

- 2026학년도 총학생회비 공과대학 배당금: ₩1,685,405

(3) 캐시백 수익

- 카드 캐시백: ₩139

- 카드 캐시백: ₩44

- 카드 캐시백: ₩44

(4) 이자 수익

- 토스 이자(6월): ₩422

- 토스 이자(7월): ₩2,387

(5) 오입금 수익

- 계좌 오입금: ₩18,000

(6) 이월금

- 공과대학·사회과학대학 연합 MT 행사 잔액 이월금: ₩35,893

(7) 총 합계: ₩1,736,048

■ 지출

(1)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7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8월): ₩14,900

- 총액: ₩29,800

(2) 오입금 환불

- 오입금 금액 출금: ₩18,000

(3) 공과대학·보건대학 연합 농촌 봉사활동

- 포카리스웨트, 40개: ₩46,550

- 총액: ₩46,550

(4) 총 합계: ₩94,350

(5) 잔액: ₩3,327,103

2) 2026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1) 9월 이월금: ₩3,327,103

(2) 중간고사 이벤트

- 배민 상품권 5만원 교환권: ₩50,000

- 배민 상품권 3만원 교환권: ₩30,000*2

- 배민 상품권 1만원 교환권: ₩10,000*4

- 총액: ₩150,000

(3) 경영대학 연합 풋살 행사

- 도토리묵 도토리슬라이스 업: ₩18,680

- 김가루: ₩26,900

- 냉면육수 동치미육수, 30개: ₩14,900

- 다진김치 배추김치 업소용: ₩11,100

- 제주참다수 그린 무라벨, 20개: ₩9,190

- 납작만두, 20장: ₩2,900*6

- 배송비: ₩3,000

- 백오이 백다다기: ₩6,570

- 채썬양배추: ₩6,260

- 적채 슬라이스: ₩8,900

- 배홍동 만능소스, 3개: ₩10,350

- 종이용기 380ml, 100개입: ₩5,790

-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세트, 100개: ₩9,090

- 배민 상품권 5만원 교환권: ₩50,000

- 배민 상품권 3만원 교환권: ₩30,000
- 배민 상품권 2만원 교환권: ₩20,000
- 총액: ₩248,130

(4) 종강파티 이벤트

- 신세계 상품권 30만원권: ₩300,000
-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00,000
-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50,000
- 총액: ₩450,000

(5)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9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10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11월): ₩14,900
- 총액: ₩44,700

(6) 기말고사 이벤트

- 쌀십원빵 반죽: ₩25,000
- 아라비아따 파스타 토마토소스: ₩9,480
- 슈레드 모짜렐라치즈: ₩45,800
- 워터포트 물 피쳐 계량컵: ₩8,450
- 십원빵트레이 호떡 포장, 100개: ₩12,500
- 총액: ₩101,230

(7) 예비비: ₩90,000

(8) 총 합계: ₩1,084,060

(9) 잔액: ₩2,243,043

3) 질의응답

- ▶ 공과대학 감사운영위원: 예산안을 확인했을 때 동일한 행사에 대해 공과대학은 '물건'으로, 경영대학은 '운영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과대학은 물품을 지원하고 경영대학은 ₩350,000의 현금성 운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함.
- ▶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에서 행사에 필요한 전체 물품을 예산안에 편성하여 구매하고, 해당 금액의 1/2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350,000에 해당하여 경영대학은 운영지원금으로 ₩350,000을 편성한 것이라고 답변.

VI. 2026학년도 디자인예술대학 예·결산안 보고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디자인예술대학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 (1) 6월 이월금: ₩874,180
- (2) 예금이자
 - 토스뱅크 통장 이자: ₩71
 - 토스뱅크 통장 이자: ₩145
- (3) 지출반환금
 - 인터프로커뮤니케이션 출금액 반환: ₩9,730
- (4) 계좌이체
 - 타 계좌 잔액 토스뱅크 계좌이체: ₩8,674
 - 특별회계 결산이자 이전: ₩116
- (5) 총 합계: ₩16,625,002

■ 지출

- (1) stud.o X 다운 농촌봉사
 - 인기과일맛사탕세트: ₩11,730
 - 포카리스웨트, 40개: ₩33,800
 - 자외선 차단 기능성 쿨토시, 10개: ₩9,900*3
 - 총액: ₩60,030
- (2) 디자인예술대학 X 태권도·체육대학 연합애티
 - 연합 MT 숙소 예약금: ₩250,000
 - 인터프로커뮤니케이션 제작비: ₩9,730
 - 총액: ₩259,730
- (3) 대동제 축제
 - 뱃지만들기 캔벤티 핀버튼 프레스 기계 ₩136,000
 - 뱃지만들기 캔벤티 핀버튼 프레스 기계, 재료 100개: ₩88,000*2
 - 총액: ₩101,800
- (4) 총 합계: ₩421,560

(5) 잔액: : ₩1,857,737

2) 2026학년도 2학기 디자인예술대학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1) 8월 이월금: ₩1,857,737

(2) 뽀빠로 이벤트

- 비규격 스티커, 100개: ₩18,900
- 뽀빠로 초코, 40개: ₩41,720*2
- 초코 뽀빠로, 20개: ₩26,900
- 총액: ₩129,240

(3) 예비비: ₩12,924

(4) 총 합계: ₩142,164

(5) 잔액: ₩1,715,573

VII. 2026학년도 보건대학 예·결산안 보고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보건대학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1) 6월 이월금: ₩613,150

(2) 보건대학 배당금

- 총학생회 재정국 2026학년도 보건대학 배당금: ₩2,283,452

(3) 이자수익

- 토스뱅크 이자(7월): ₩66
- 토스뱅크 이자(8월): ₩192

(4) 카드 오결제 환불

- 쿠팡 와우멤버십 카드 오결제 환불: ₩7,890

(5) 예약금 반환금

- 보건대학 연합 MT 숙소 예약금 반환: ₩500,000
- 보건대학 연합 MT 버스 대절 예약금 반환: ₩100,000

(6) 총 합계: ₩2,891,600

■ 지출

(1) 디자인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 월간 요금제 7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 월간 요금제 8월: ₩14,900
- 총액: ₩29,800

(2) 보건대학 X 공과대학 연합 농촌 봉사

- 포카리스웨트, 40개: ₩46,550
- 총액: ₩746,550

(3) 보건대학 연합 MT

- 보건대학 연합 MT 숙소 예약금 지원비: ₩500,000
- 보건대학 연합 MT 버스 대절 예약금 지원비: ₩100,000
- 총액: ₩600,000

(4) 보건대학 X 사회과학대학 연합 야구 관람

- SSG vs LG 경기 총학생회비 납부자 티켓 할인 지원 (1인, 1,000원): ₩1,000*5
- 총액: ₩5,000

(5) 카드 오결제

- 쿠팡 와우멤버십 카드 오결제: ₩7,890
- 총액: ₩7,890

(6) 총 합계: 689,240

(7) 잔액: 2,815,510

2) 2026학년도 2학기 보건대학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1) 8월 이월금: ₩2,815,510

(2) 디자인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 월간 요금제 9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 월간 요금제 10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 월간 요금제 11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 월간 요금제 12월: ₩14,900

- 총액: ₩59,600

(3) 대동제 축제 부스 운영 물품

- 타공 PVC 지퍼백 소형: ₩100 * 450
- 타공 PVC 지퍼백 중형: ₩130 * 150
- 디뷰엣 D링 키링 부자재 연결 고리, 100개: ₩12,900 * 6
- 탐사 PET 투명 디저트컵 265ml + 뚜껑, 1개, 50개입: ₩7,890
- 옴스 24색 DIY 비즈공예 세트, 레드, 1세트: ₩6,900 * 3
- 옴스 24색 DIY 비즈공예 세트, 옐로우, 1세트: ₩6,900 * 3
- 옴스 24색 DIY 비즈공예 세트, 캔디그린, 1세트: ₩6,900 * 3
- 옴스 24색 DIY 비즈공예 세트, 블루, 1세트: ₩6,900 * 3
- 옴스 24색 DIY 비즈공예 세트, 퍼플, 1세트: ₩6,900 * 3
- 옴스 비즈 팔찌 반지 24색 DIY 세트, 파스텔, 1세트: ₩7,900 * 3
- 일본 민화 인쇄 동물, 귀여운, 입체, 조디악, 레진, DIY 네일 액세서리 200pcs: ₩6,900
- 11mm 컬러드 패싯드 네일클로버 아크릴 비즈 01번: ₩1,400
- 11mm 컬러드 패싯드 네일클로버 아크릴 비즈 02번: ₩1,150
- 만화 26자 네일 ABC 문자 네일 아트 액세서리 3D 50pcs: ₩1,400 * 2
- 디저트 네일 홈 장식품, 초콜릿 비스킷 피자 레진 디저트 3D 20pcs: ₩1,650 * 2
- 1박스 레진 체리 시리즈 M8350-12: ₩2,400
- 3D 만화 젤리 베어 네일 아트 50pcs Mixed: ₩2,150
- 50개 3D 믹스 토끼 딸기 네일 파츠 ZCF193: ₩2,400
- 네일 아트 만화 액세서리 작은 노란 오리 레진 20pcs: ₩1,650 * 2
- 3D 다채로운 혼합 아크릴 주얼리 네일 장식 50pcs Blue: ₩1,949 * 2
- 3D 다채로운 혼합 아크릴 주얼리 네일 장식 50pcs Pink: ₩1,975 * 2
- 3D 다채로운 혼합 아크릴 주얼리 네일 장식 50pcs Purple: ₩1,941 * 2
- 3D 다채로운 혼합 아크릴 주얼리 네일 장식 50pcs Green: ₩1,942 * 2
- 3D 다채로운 혼합 아크릴 주얼리 네일 장식 50pcs Aurora: ₩1,949 * 2
- 미니 레진 거북이 야옹 미니어처 마이크로 100pcs Random XS: ₩2,342 * 7
- 미니 레진 거북이 야옹 미니어처 마이크로 100pcs Random S: ₩2,513 * 2
- 미니 레진 거북이 야옹 미니어처 마이크로 100pcs Random M: ₩3,070 * 2
- 10-100개 야광 만화 토마토 거북이 과일 거북이 홈데코 Mix A/50pcs: ₩4,5

- 10-100개 야광 만화 토마토 거북이 과일 거북이 홈데코 Mix B/50pcs: ₩4,580
- 10-100개 야광 만화 토마토 거북이 과일 거북이 홈데코 Mix C/50pcs: ₩6,770
- 70/50개 헬로키티 고양이 네일 참 장식 50PCS MIX A: ₩4,080
- 70/50개 헬로키티 고양이 네일 참 장식 50PCS MIX C: ₩4,080
- 70/50개 헬로키티 고양이 네일 참 장식 50PCS MIX D: ₩4,080
- 키티 아이스크림 네일 참 - 미니 아이스크림 네일 아트 Mix-100pcs: ₩4,760
- 귀여운 네일아트 장식품 귀여운 만화 헬로키티 네일 참 DLG23: ₩13,250
- 만화 캐릭터 네일아트 액세서리 귀여운 레진 웨어링 N63/100pcs: ₩8,100
- 혼합형 산리오 네일 참 귀여운 만화 캐릭터 레진 120pcs: ₩3,820
- 혼합형 산리오 네일 참 귀여운 만화 캐릭터 레진 35CS: ₩3,380 * 2
- 치이카와 새 믹스 네일아트 장식품 액세서리 random 100pcs: ₩8,060
- 3D 귀여운 롤리팝 디자인 네일 아트 참 20pcs: ₩1,934 * 2
- 1cm 미니 포켓몬 아크릴 믹스 애니메이션 DIY 웨이퍼 100pcs random: ₩4,140
- 180 Ice-Star Kirby 2cm Resin Charms Cute Cartoon 30PCS Random: ₩4,300
- 총액: ₩439,790

(4) 보건대학 연합 추석 간식 행사(보름달)

- 보건대학 연합 추석 간식 행사(보름달) 보건대학 지원금: ₩4,200*58
- 현수막: ₩18,900
- 규격 스티커, 1000장: ₩11,800
- 총액: ₩277,300

(5) 국가고시 응원 행사

- 배민상품권 2만원 교환권: ₩20,000*15
- 총액: ₩300,000

(6) 기말고사 응원 행사

- 선물하기 상품권 1만원권: ₩10,000*40
- 총액: ₩400,000

(7) 예비비: ₩140,000

(8) 총 합계: ₩1,616,690

(9) 잔액: ₩1,198,820

VIII. 2026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예·결산안 보고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사회과학대학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1) 1학기 이월금: ₩7,738,182

(2) 이자수익

- 토스 이자(7월): ₩89
- 토스 이자(8월): ₩195

(3) 배당금

- 2026학년도 사회과학대학 배당금: ₩1,730,712₩

(4) 연합 MT 잔여금

- 연합 MT 정산 후 잔여금: ₩35,893

(5) 총 합계: ₩1,766,889

■ 지출

(1)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7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8월): ₩14,900
- 총액: ₩29,800

(2) 경영대학 X 보건대학 X 사회과학대학 단체 야구 관람

-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비 납부자 지원금: ₩1,00086
- 총액: ₩6,000

(3) 연합 농촌봉사활동

- 자외선 차단 냉감 팔토시, 30개: ₩21,870
- 포카리스웨트, 40개: ₩46,550
- 총액: ₩68,420

(4) 1학기 스터디 [사과농장 만들기]

- 컴포즈커피 5천원권: ₩5,000*2
- 컴포즈커피 1만원권: ₩10,000*3
- 컴포즈커피 2만원권: ₩20,000*1
- 총액: ₩60,000

(5) 총 합계: ₩164,220

(6) 잔액: ₩2,661,044

2) 2026학년도 2학기 사회과학대학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예산안에 오류사항을 발견하여 즉시 수정한 후, 수정본을 드라이브에 재업로드하였음을 알림.

(1) 8월 이월금: ₩2,661,044

(2) 중간고사 간식행사

- 봉구스 밥버거: ₩3,500*90
- 총액: ₩315,000

(3) 기말고사 간식행사

- 허쉬 오리지널 핫초코, 24개: ₩21,600*4
- 포춘쿠키 타로운세, 100p: ₩87,500
- 크리스마스 진저맨 진저걸 수제완성쿠키 7종 날개구성: ₩3,900*13
- 총액: ₩224,600

(4) 마이크로디그리 설문조사

- 컴포즈커피 아메리카노(ice): ₩1,800*10
- 총액: ₩18,000

(5) 독서 모임 [가을 타나 보기]

- 컴포즈커피 아메리카노(ice): ₩1,800*15
- 배민상품권 2만원 교환권: ₩20,000
- 배민상품권 1만원 교환권: ₩10,000*2
- 교보문고 기프트 카드 3만원권: ₩30,000
- 총액: ₩97,000

(6) 신한대동제

- 소자본고소득 장사아이템 전용리무버 10ml: ₩5,890

- 소자본고소득 장사아이템 전용리무버 50ml+50ml: ₩14,900
- 소자본고소득 아이템 디자인확인 후 선택구매, 헤나잉크 30ml*3개: ₩54,990
- 재사용가능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큰붓: ₩1,700*2
- 헤나타투 장사A4세트 소자본고소득아이템 일반붓: ₩1,370*2
- 헤나타투재료 A4 장사&행사세트, 레터링9: ₩45,000
- 헤나타투재료 A4 장사&행사세트, 레터링16: ₩45,000
- 헤나타투재료 A4 장사&행사세트, 문양1: ₩45,000
- 헤나타투재료 A4 장사&행사세트, 문양3: ₩45,0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게자리: ₩3,9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사수자리: ₩3,9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물병자리: ₩3,9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물고기자리: ₩3,9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염소자리: ₩3,9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전갈자리: ₩3,9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천칭자리: ₩3,9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처녀자리: ₩3,900
-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수백번 재활용 가능, 2-양자리: ₩3,900
- 재사용가능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별자리-사자-2: ₩3,900
- 재사용가능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별자리-쌍둥이-2: ₩3,900
- 재사용가능 헤나타투 셀프헤나도안, 별자리-황소-2: ₩3,900
- 헤나타투도안 반영구스티커 셀프헤나 윤신도안, DT도안-33: ₩7,800
- 헤나타투도안 반영구스티커 셀프헤나 윤신도안, DT도안-14: ₩7,800
- 타투 스텐실 MK, MK11: ₩3,000
- 타투 스텐실 MK, MK15: ₩3,000
- 타투 스텐실 MK, MK19: ₩3,000
- 타투 스텐실 MK, MK20: ₩3,000
- 배송비: ₩2,700
- 총액: ₩342,920

(7) 2학기 스터디 [사과 수확하기]

- 배민상품권 2만원권 교환권: ₩20,000*2
-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1만원권: ₩10,000
- 컴포즈커피 1만원권: ₩10,000

-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 ₩5,000*4
- 총액: ₩80,000
- (8)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9월~12월, 4개월): ₩14,900*4
 - 총액: ₩59,600
- (9) 예비비: ₩100,000
- (10) 총 합계: ₩1,237,120
- (11) 잔액: ₩1,423,924

IX. 2026학년도 태권도·체육대학 예·결산안 보고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태권도·체육대학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 (1) 6월 이월금: ₩607,544
- (2) 이자 수익
 - 카카오뱅크 이자(6월): ₩60
 - 카카오뱅크 이자(7월): ₩113
 - 카카오뱅크 이자(8월): ₩128
- (3) 배당금 수익
 - 총학생회 2학기 배당금: ₩1,223,378
- (4) 캐시백 수익
 - 카카오 체크카드 캐시백: ₩33
- (5) 오출금 재입금
 - 오출급분 재입금: ₩48,470
- (6) 2026 태권도·체육대학 X 디자인예술대학 연합 MT
 - 연합 MT 특별회계 잔금 귀속: ₩48,470
- (7) 총 합계: ₩1,280,088

■ 지출

(1) VOLT 토토

-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 ₩5,500*30
- 총액: ₩165,000

(2) 2026 태권도·체육대학 X 디자인예술대학 연합 MT

- 모나리자 독스 에코 데코: ₩5,000
- 태권도·체육대학 X 디자인예술대학 연합 MT 지원금: ₩100,000
- 총액: ₩105,000

(3) VOLT 복지물품 대여사업

- 생리대 날개형, 중형, 36개입: ₩11,560
- 초고속 C타입 케이블 일체형 충전기: ₩4,900
- 노크식 수정 테이프: ₩1,000*2
-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디스펜서: ₩1,000*2
- 오피스 티타늄 코팅 가위: ₩1,000*2
- 총액: ₩22,460

(4) 쿠팡 오출금

- 쿠팡 쿠페이 오출금: ₩48,470
- 총액: ₩48,470

(5) 총 합계: ₩340,930

(6) 잔액: ₩1,546,702

2) 2026학년도 2학기 태권도·체육대학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1) 8월 이월금: ₩1,546,574

(2) 대동제

- 썰은 배추김치: ₩25,970
- 튀김가루, 3개: ₩6,050
- 부침가루, 2개: ₩5,420
- 하얀설탕: ₩2,230
- 일회용 원형 종이접시, 10매: ₩1,000*10
- 복숭아 아이스티 베이스, 3개: ₩28,350

- 아이스컵 + 돗뚜껍 세트: ₩11,900
- 부탄가스 28개입, 4개, 3개: ₩15,490
- 콩기름 식용류, 5개: ₩22,500
- 총액: ₩127,910

(3) 중간고사 간식행사

- 닥터유 에너지바 미니, 10개: ₩57,910
- 총액: ₩57,910

(4) VOLT 올림픽

- 토레타 무라벨 이온음료, 120개: ₩86,340
- 청정골지리산수 무라벨, 24개: ₩10,790
- 분리수거 건설현장 포대, 25개: ₩7,740
- 릴레이 바톤, 5개: ₩5,900
- 총액: ₩110,770

(5) 태권도 체육대학 2학기 종강총회

- 배민상품권 3만원 교환권: ₩30,000*2
- 에어팟 4 : ₩168,100
- 나이키 남녀공용 드라이 핏 파크저지 반팔티: ₩43,900
- 올리브영 CJ 기프트카드 1만원권: ₩10,000*3
- 총액: ₩302,000

(6) 예비비: ₩59,859

(7) 총 합계: ₩658,449

(8) 잔액: ₩888,125

X. 2026학년도 동아리연합회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

1) 2026학년도 하계방학 동아리연합회 결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 수익

- (1) 6월 이월금: ₩708,566
- (2) 이자 수익

-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이자(6월): ₩68
-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이자(7월): ₩186
-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이자(8월): ₩247

(3) 캐시백

- 프렌즈 체크카드 캐시백(7월): ₩390
- 프렌즈 체크카드 캐시백(8월): ₩30

(4) 배당금

- 총학생회비 배당금: ₩2,210,961

(5) 총 합계: ₩2,211,882

■ 지출

(1)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7월): ₩14,900
- 미리캔버스 pro(8월): ₩14,900
- 총액: ₩29,800

(2) 총 합계: ₩29,800

(3) 잔액: ₩2,890,648

2) 2026학년도 2학기 동아리연합회 예산안(드라이브 링크 참조)

(1) 8월 이월금: ₩2,890,648

(2) 축제

- 오뚜기 메론시럽, 6개: ₩19,080*2
- 아임요 크림소다 베이스, 6개: ₩65,310
- 트레비 플레인: ₩46,970*4
- 레드체리, 12개: ₩57,960
- 바닐라맛 빙과(냉동): ₩12,540*4
- 얼음, 5개: ₩49,500*4
- 레인보우 스프링클: ₩6,100
- 버진 올리브유 마라스카: ₩22,540
- 곰곰 통후추 그라인더: ₩12,000
- 아이스컵 + 돗뚜껑, 100개입: ₩18,000*5

- 크라프트 무지 홀더, 1000개: ₩14,900
- 개별포장 빨대, 500개입: ₩9,000
- 투명 플라스틱컵, 500개입: ₩41,000
- 미니스푼, 100개입: ₩5,700*5
- 아이스크림 스쿱: ₩5,900*2
- 얼음 스쿠프, 2개: ₩7,000
- 레스토랑 서비스 알람 방울: ₩8,800
- 배송비: ₩3,000
- 동아리 부스 운영 지원금: ₩50,000*9
- 총액: ₩1,302,110

(3) 중간고사 간식행사

- 이삭토스트 햄치즈 토스트: ₩3,600*100
- 총액: ₩360,000

(4) 디자인 플랫폼

- 미리캔버스 pro: ₩14,900*4
- 총액: ₩59,600

(5) 예비비: ₩172,171

(6) 총 합계: ₩1,893,881

(7) 잔액: ₩996,767

3) 예·결산안 심의·의결

(1) 찬성: 271명

(2) 반대: 0명

(3) 기권: 0명

→ 만장일치로 가결.

XI.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 심의 및 의결

1) 개요

(1) 조문 내 오타자를 정정하여 회칙의 정확성 확보.

(2) 감사 관련 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총학생회장단 징계에 대한 적용 조항을 구분하여 회칙 간 충돌 방지.

2) 총학생회칙(신구조문대비표 드라이브 링크 참조)

3) 제75조(탄핵) 개정 제5항

- 기존 조항에 단순 오타자가 확인되어, 조항의 의미 및 내용에는 변동 없이 정확한 표현으로 정정하고자 함.

4) 제134조(징계의 종류) 제9항

- 기존 조항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중 장학금 감면 및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하여 총학생회가 해당 내용을 공식 SNS 및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사항의 공고는 현재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감사운영위원회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항을 총학생회칙에서 총학생회의 의무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각 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감사에 따른 징계 조치에 관한 규정과 총학생회장단 탄핵에 관한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은 본칙 제75조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는 본칙 제7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회칙상 탄핵 절차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5) 질의응답

- ▶ 상담심리학과 학생회장: 개정안은 총학생회장단 탄핵 절차를 총학생회칙 제75조에 따른다고 개정되어 있으나, 총학생회칙 제75조 확인 결과 현재 감사운영위원회가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바, 개정 후 감사 결과에 기초한 탄핵안은 일반 연서 탄핵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인지 질의. 더하여 감사 결과는 절차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도 질의. 총학생회칙 제75조 제5항은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전학대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부결된 경우의 규정은 없으며, 제4항은 소집 거부만 대비하고 있는바, 감사 결과에 기초한 탄핵안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전학대회에 회부할 다른 경로가 있는지 질의. 개정안에서는 감사 결과 공고 의무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후 총학생회의 감사 결과 공고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총학생회장: 제75조에 따른 탄핵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한 이후 임시 의장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연서를 받은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폐회하고 다시 개회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 투표를 진행한 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폐회하고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총학생회장단 탄핵의 기본적인 절차이며,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총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감사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설립하면서 필요한 조항들을 총학생회칙과 감사운영세칙에 각각 제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총학생회칙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 총학생회장단은 전체 학우가 직접 선출한 대표라는 점에 대해 설명. 학과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학과나 단과대학 구성원의 대표인 반면, 총학생회장단은 전체 학부를 대상으로 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전체 학생의 대표자이므로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지위를 박탈하는 사안은 단순히 특정 자치기구의 임원을 징계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 실제로 타 대학에서도 총학생회장단 탄핵을 별도의 절차로 두는 사례가 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 측은 총학생회장단 탄핵 소추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탄핵 결의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국대학교 학생회 관련 규정에서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에 대한 탄핵 발의 및 의결 권한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 또한 총학생회장단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대표하는 지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하나의 자치기구 회장이 아니라 총학생회를 대표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과와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동일한 징계 절차를 적용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탄핵 대상자가 회의 의장이나 소집권자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탄핵 절차에서 누가 회의를 진행하고, 누가 소집하며, 당사자의 의결권이나 의장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 실제로 카이스트의 경우에도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여 인체 이상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 마지막으로 감사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탄핵 권한을 구분해야 하며, 감사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를 판단하는 기구이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 총학생회장단 탄핵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기구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 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총학생회칙 제75조 탄핵안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

- ▶ 공과대학 학생회장: 해당 개정안을 보았을 때 감사에 따른 징계조치로 탄핵의 발의·심의·의결에 대한 부분은 총학생회 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감사위원회의 징계에서는 총학생회를 포함한 모든 단위에 장학금 감면, 탄핵안 등의 징계조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학과 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또한 학생들에 의해 당선되어 운영되는 학생회이며, 단순히 전체 학생들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 제시.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회칙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
- ▶ 총학생회장: 학과 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역시 해당 구성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로서 학생 자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설명. 다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총학생회장단의 감사에 따른 징계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하거나 총학생회장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 핵심은 감사에 따른 일반적인 징계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을 동일한 절차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임을 설명. 감사운영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각 단위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수 있지만,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은 단순한 징계의 한 종류로만 보기에 그 성격과 절차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 특히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전체 학부를 대상으로 선출되는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회칙에서도 별도로 제75조를 두어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 따라서 감사운영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총학생회장단의 탄핵까지 직접 발의·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제75조의 탄핵 절차와 감사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 이번 개정은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운영위원회의 감사 및 징계 권한과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절차를 구분하는 것임을 설명. 또한 총학생회장단에만 책임을 면제하거나 탄핵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항도 아님을 설명. 감사 결과에서 탄핵에 해당할 정도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학생회장단은 제7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됨을 설명.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총학생회장단에 유리한 예외를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칙에서 이미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총학생회장단 탄핵 절차를 존중하여 감사운영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설명.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과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역시 각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라는 점에서 향후 각 단위 학생회장단의 탄핵 절차와 감사에 따른 징계 절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회칙 전체의 체계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제75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경우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75조에 따르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로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과반수의 연서를 받거나 본 회의에서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의견이 상정되더라도 해당 연서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에 관해서는 총학생회 측에 명시되어 있는 제75조에 따라서만 가능했던 것이 맞음을 설명. 학과 및 단과대학 학생회는 총학생회 측의 징계에 따라 장학금 감면 등의 징계조치가 적용되는 반면,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은 왜 제75조에 따라서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앞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한 것임을 설명. 또한 지난해 감사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총학생회칙 역시 체계가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을 함께 개정했어야 했으나, 당시 전체적인 체계를 변경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추가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현재 서로 충돌하는 회칙이 다수 발생한 상황임을 설명. 이에 현재 충돌하고 있는 회칙을 바로잡고자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징계조치는 제75조에 따른 절차로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답변.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총학생회장단이 감사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 질의. 다른 단위의 경우 감사를 받아 징계 또는 다른 페널티를 받게 되면 이를 계기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열심히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총학생회장단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와 관련하여 일종의 방패가 마련되는 경우 감사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을 설명. 실제로 그러한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단위에서 느끼기에는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탄핵까지 진행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든 감추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함을 설명.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 ▶ 총학생회장: 해당 개정안을 방패막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설명.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의 발의·심의·의결에 관한 부분이며, 그 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단 역시 모두 징계를 받고 있음을 설명. 기존에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감사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함께 개정했어야 했음에도 필요한 부분만 순차적으로 추가 및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회칙 간 충돌이 발생한 상황임을 설명. 따

라서 현재 회칙을 앞세워 방패막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총학생회장단 탄핵 절차와 감사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충돌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임을 설명.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탄핵을 제외한 장학금 감면 등의 징계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학생회장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질의.
-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측에 감사 징계 결과에 따른 조치는 감사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탄핵을 제외한 장학금 감면 등의 징계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음을 답변. 현재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에 관한 사항임을 설명.
- ▶ 경찰행정학과 학생회장: 총학생회칙 제134조 제9항 개정으로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에 제75조가 적용될 경우, 감사운영세칙 제32조에서 감사운영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탄핵 안건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상정' 권한이 개정 이후 총학생회장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 적용되는 경우 제75조에 따른 연서에 의한 발의 절차와 감사운영위원회의 탄핵 안건 상정 절차 중 어느 절차가 선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
- ▶ 총학생회장: 현재 금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경우 감사운영위원회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바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나,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경우 감사운영위원회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바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닌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설명.
- ▶ 유아교육학과 학생회장: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감사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역시 감사·평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 절차는 총학생회칙보다 감사운영세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감사운영세칙 제4조 지위 부분에 감사운영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감사운영위원회 회칙을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은 불가능한지 질의.
- ▶ 총학생회장: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운영위원장과 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전일 감사운영위원장과 함께 논의했을 당시에는 감사운영세칙에 해당 부분을 개정하는 것보다 총학생회칙에 해당 부분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 또한 제4조 지위 부분에 감사운영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감사운영위원회 회칙

을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감사운영위원장과 논의한 바 있으며,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때 체계를 변경하면서 감사운영세칙과 총학생회칙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

- ▶ 공과대학 감사운영위원: 총학생회칙 제75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먼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총학생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해당 당사자의 탄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탄핵 대상자인 총학생회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회의에서 해당 당사자의 탄핵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제시.
- ▶ 총학생회장: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 정기감사에 따른 결과로 금일 해당 부분이 언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탄핵 대상자인 총학생회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로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음을 설명. 이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칙 제 75조 제4항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 제75조 제4항 전문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중앙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회 직후 임시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 따라서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인 총학생회장이 본인의 탄핵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 위해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앙운영위원 중 한 명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직후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연서를 받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탄핵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을 설명.
- ▶ 공과대학 감사운영위원: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중앙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더라도 탄핵 대상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우려임을 설명. 해당 구성원들과 수 개월간 함께 회의를 진행해 온 상황에서 탄핵 대상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회의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눈치를 볼 수 있으며, 특히 탄핵과 관련한 의사표시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탄핵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우려로 질의.

- ▶ 총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회를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 역시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고 있는 회장단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실제로 중앙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수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한 익명투표를 진행하기도 함을 설명. 금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되는 탄핵안 및 재정국 징계 절차와 그 외 다른 타 단위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실명제가 아닌 익명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설명. 따라서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니며, 중앙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총학생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는 없음을 설명.
- ▶ 공과대학 감사운영위원: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익명 투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제시.
- ▶ 총학생회장: 금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도 투표를 익명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총학생회장단이라는 직위의 탄핵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대표라면 해당 당사자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학생 대표라면 본인이 소속된 단위와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책을 밝히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제시.
- ▶ 공과대학 학생회장: 총학생회칙을 개정하기보다는 감사운영세칙을 개정함으로써 회칙 간 충돌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감사운영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로를 견제하여 보다 투명한 회계를 만들기 위해 총학생회칙뿐만 아니라 감사운영세칙 또한 함께 체계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추가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과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탄핵 발의에 대한 절차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
- ▶ 총학생회장: 감사운영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총학생회를 견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을 설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운영위원회는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및 총학생회의 재정 운영 상태를 충분히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임을 설명.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래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제75조에 명시

된 절차를 따라야 했으나, 지난해 감사운영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75조에 존재하고 있는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설명. 당시 본인이 총학생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당시 총학생회장과 감사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개정을 요청받았으며, 제75조의 절차를 참고하지 않고 필요한 감사운영세칙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설명. 현재 해당 부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만일 감사운영위원회가 학과 및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일하게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는 감사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대의원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해당 부분은 총학생회 측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시점 이후의 징계 처분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이후에 있을 징계 처분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님을 설명.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총학생회칙 제75조 제2항에 감사운영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
- ▶ 총학생회장: 해당 건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
- ▶ 유아교육학과 학생회장: 금일 본칙 개정안이 투표를 통해 부결될 경우에는 감사운영세칙에서 개정이 가능한지 질의.
- ▶ 총학생회장: 금일 본칙 개정안이 투표를 통해 부결될 경우 앞서 대표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감사운영세칙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또는 총학생회칙을 보다 완화하여 차후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
- ▶ 미래자동차공학과 학생회장: 총학생회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회칙의 우선순위는 본칙·세칙·규칙으로 하며,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산하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설명. 이와 관련하여 총학생회칙과 감사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충돌할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사운영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알고 있는데, 해당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감사운영위원회가 총학생회보다 상위의 기구라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 ▶ 총학생회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해 감사운영위원회를 설립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세칙으로 추가하다 보니 현재 총학생회칙과 감사운영위원회 관련 회칙의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 감사운영위원회가 독립기구인 것은 맞으나, 지난해 당시 감사운영위원장이 확대운영위원회에 감사운영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이 총학생회장인 상황에서 해당 위원회에 감사운영위원장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감사운영위원회가 오로지 독립기구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 이처럼 현재 관련 회칙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칙의 우선순위에 따라 본칙과 세칙 중 상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부분을 개정하여 체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

- ▶ 미래자동차공학과 학생회장: 상위 규정이 총학생회칙이라면 감사운영위원회 세칙을 개정하여 회칙 간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이해가 맞는지 질의.
- ▶ 총학생회장: 징계와 관련한 부분이 모두 총학생회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발의 권한과 총학생회장단 탄핵에 대한 절차 역시 총학생회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 따라서 현재 본칙인 총학생회칙 내에서 관련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운영세칙이 아닌 총학생회칙 내에서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기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질의하며, 현재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
- ▶ 총학생회장: 기존에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선거 진행 시 토론회 및 정책공청회와 투표 개표 과정에 한해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

6)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 심의의결

(1) 찬성: 14명

(2) 반대: 141명

(3) 기권: 90명

→ 과반수 이상 반대로 부결.

Ⅹ. 감사운영세칙 일부 개정 심의 및 의결

1) 개요

- (1) 징계 처분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경고 누적에 따른 징계 처분 기준을 조정하여 사안의 정도에 따른 단계적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운영세칙(신구조문대비표 드라이브 링크 참조)

3) 제32조(징계의 종류) 제5항 제1호 개정

- 경미한 징계 단계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우선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함

4) 제32조(징계의 종류) 제5항 제2호 개정

- 경고 3회 부여 시 기존 학생 임원 장학금 30% 감면 처분에서 사과문 제출·게재 처분으로 변경하여, 경고 누적에 따른 징계 단계를 세분화함

5) 제32조(징계의 종류) 제5항 제3호 개정

- 기존 경고 3회 시 부여하던 활동 및 예산 집행 제한 처분을 경고 4회 단계로 조정하여, 사과문 제출·게재 이후의 단계적 징계 기준을 마련함.

6) 제32조(징계의 종류) 제5항 제4호 개정

- 기존 경고 3회 시 부여하던 학생 임원 장학금 30% 감면 처분을 경고 5회 단계로 조정하여, 징계 누적 정도에 따른 처분 기준을 세분화함.

7) 제32조(징계의 종류) 제5항 제5호 개정

- 기존 경고 4회 이상 시 부여하던 회장단 탄핵 및 차기 학생자치기구 활동 자격 제한 처분을 경고 6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징계 단계에 따른 처분 체계를 구체화함.

8) 질의응답

- ▶ 공과대학 재정부 부장: 징계의 종류를 완화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감사운영세칙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의결받기에 앞서, 현재 감사 체계상 징계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계는 사과문, 2단계는 장학금 감면, 3단계는 탄핵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 징계 수위가 단계별로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이에 방학 동안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재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음을 설명.

- ▶ 공과대학 감사운영위원: 기존 감사 경고 3회 시 장학금 30% 감면에서 감사 경고 5회 시 장학금 30% 감면으로 조정하여 징계 기준을 완화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기존 기준인 감사 경고 3회 시 30% 감면에서 경고 횟수를 5회로 늘린 이유에 대해 질의. 또한 감사 경고 1회 시 장학금 10% 감면, 2회 시 20% 감면, 3회 시 30% 감면과 같이 경고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 ▶ 감사운영위원장: 감사 경고 3회에서 5회로 조정한 이유는 앞선 답변과 같이 기존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단위에서도 해당 기준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 감사 경고에 따른 장학금 감면을 10%, 20%, 30%와 같이 단계별로 세분화하지 않은 이유는 감사 운영세칙에 규정된 징계가 총학생회칙에 따른 징계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총학생회 측에서도 장학금 30% 및 50% 감면을 징계 기준으로 두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설명.
- ▶ 공과대학 감사운영위원: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의견이 징계를 받은 단위에서 제기된 의견은 아닌지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의견은 특정 징계 대상 단위에 한정된 의견이 아니라, 전 단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한 결과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음을 설명.
- ▶ 글로벌무역학과 학생회장: 개정되는 감사운영세칙이 2026학년도 2학기 정기감사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해당 개정안은 이번 하계 방학 정기감사부터 적용됨을 안내.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하계방학 정기감사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1학기 감사 결과 및 징계 내역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금일 진행되는 감사는 1학기 감사 결과에 따라 1학기까지 적용되었던 감사운영세칙의 징계 기준으로 진행되며, 하계방학 정기감사부터 개정된 감사운영세칙이 적용됨을 설명. 이에 따라 1학기 감사 결과로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 단위가 하계방학 정기감사에서 사과문 작성에 해당하는 징계 수위에 오를 경우, 다시 사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징계가 진행됨을 설명.

-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본칙 제32조 제5항에 따른 탄핵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해당 징계를 받은 단위의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해당 탄핵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사과문 기재 및 게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안내.
- ▶ 빅데이터경영학과 학생회장: 대부분의 단위에서 감사 경고 1회를 받는 경우도 드문 상황인 만큼, 감사 경고 5회 시 장학금 30% 감면으로 조정하는 것은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오히려 투명한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타 대학 사례와 비교·조사하였을 때 본교의 징계 수위가 다소 강한 부분이 있어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완화한 부분이 있음을 설명. 또한 한 번의 실수가 지속되면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어 주의 및 경고가 누적되는 단위들이 전년도와 올해에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경고 4~5회가 누적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설명. 이에 따라 세칙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투명한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중앙운영위원회와 감사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설명.
- ▶ 글로벌무역학과 기획부 부장: 제시된 개정안에서 감사 경고 2회 시 게시하는 개선보고서와 감사 경고 3회 시 게시하는 사과문이 목적이나 내용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개선보고서와 사과문을 서로 다른 징계 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개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향후 시정 방안과 계획을 제시하고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지원·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과문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학과 또는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학생 재정 관련 잘못된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 경고 3회 부여 시 해당 단위는 일정기간 활동 및 예산 지출이 제한되며, 징계 기간은 감사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 해당 개정안이 하계방학 정기감사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한 바와 같이, 하계방학 감사 결과가 10월경 발표될 경우 최대 2개월의 활동 정지 기간이 12월경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단위의 실질적인 업무가 제한되더라도 이후 장학금을 지급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하계방학 감사 결과가 10월경 발표될 경우 최대 2개월의 징계로 12월까지 활동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위가 약 2개월간 활동을 중지한 이후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보일 수 있어 징계가 오히려 휴식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인식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인지 재차 확인.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징계 기간 동안 해당 단위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이에 대해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해당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학생회로서 계획한 행사 및 축제, 재학생들을 위한 복지 활동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학생의 입장에서 일정 기간 활동을 중단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다만 학생회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 및 단과대학 재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이나 학생회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및 불편함 등을 재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므로, 이러한 활동 제한 자체가 해당 단위에 충분한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음을 설명.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감사위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으로 인한 불편함은 재학생들이 직접 느끼게 되며, 징계 대상 단위에서도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장학금은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징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의견을 제시.
- ▶ 감사운영위원장: 학생회 활동은 모두 활동보고서를 통해 학생팀에 제출되며,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회가 성실하게 활동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설명.
- ▶ 공과대학 기획부 부장: 학생팀에서 해당 단위의 활동 내역을 확인한 후 장학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해당 단위가 징계로 인해 2개월 동안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 학생팀에서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부결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감사 경고 5회 누적에 따른 장학금 30% 감면과 6회 누적 시

장학금 감면 및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징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

- ▶ 감사운영위원장: 활동 중지 기간으로 인해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징계와 장학금 감면 처분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안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설명. 다만 장학금 80% 감면의 경우 총학생회 측에서 직접적으로 감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나, 활동 중지로 인한 활동보고서 제출 및 장학금 지급 여부는 총학생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설명.
-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부학생회장: 앞선 답변에서 감사 경고 5회가 누적되는 단위가 다수 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징계 수위를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징계 종류는 유지하되 감사 경고가 부여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건의.
- ▶ 감사운영위원장: 감사 경고가 횡령이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아닌, 금액 오기재가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자료 누락, 제출 일자 지연 등 단순한 실수로 인해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 이로 인해 실수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게 누적되어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는 단위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존 징계 기준을 유지하여 단순한 실수의 반복으로 징계가 누적되고 안건이 상정되는 것보다는 징계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

9) 감사운영세칙 일부 개정 심의·의결

- (1) 찬성: 56명
- (2) 반대: 89명
- (3) 기권: 93명

→ 과반수 이상 반대로 부결.

XⅢ. 감사운영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보고

1) 개요

- (1) 금년도 동기 방학 및 1학기 중 총 2회의 정기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학기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누적으로 4개 단위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

(2) 각 단위 대표자의 소명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기표 방식으로 의결을 진행할 예정.

2) 감사운영위원회 정기감사 보고

3) 공연예술학과

(1) 문제 사항 보고

- 예·결산안 미공개(경고 9회)
- 심의·의결 절차 미준수(경고 7회)
- 누적 주의 및 경고: 주의 1회 경고 16회

4) 공연예술학과 학생회장 소명

- ▶ 공연예술학과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공연예술학과 제13대 학생회장 임수민입니다. 먼저 이번 1학기 정기감사 결과로 공연예술학과 학우분들과 전체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공연예술학과 학생회는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하지 못한 사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결산안 미공개와 관련하여 경고 9회, 심의·의결 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경고 7회, 총 16회의 경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회장단 탄핵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저희의 잘못을 피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한 내에 공개하지 못했던 것은 학생회 내부에서 공개 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개 자체를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게시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뒤늦게 공개한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자료들은 모두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공개했다고 해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했어야 할 학생회장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 절차 역시 저희 학생회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가 있었고, 집행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전 심의라는 절차를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와서 형식적으로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당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잘못이며, 특히 학생회장인 제가 먼저 확인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고의적인 비리나 고의적인 미공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사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개 기한과 심의·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잘못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학생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금액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사용 내역을 작성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학생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최종 감사 보고서에서도 자료 제출 여부와 금액, 오기재 및 기타 문제 사항에는 별도의 수정 사항이 없었고, 지적된 내용은 공개 기한 미준수와 심의·의결 절차 미준수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이유로 절차상의 잘못이 가볍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생회비는 학우분들이 납부한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만큼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 사용되고 어떻게 공개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는 현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학생회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재정과 행정 업무가 일부 인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장과 차장을 추가 모집하여 인력을 보충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는 재정 업무를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작성된 이후 심의·의결과 공개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학생회장으로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공연예술학과 학생회는 개강총회와 축제, 체육대회 등 2학기에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학생들이 수업과 공연 준비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회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장단이 갑작스럽게 교체될 경우 새로운 인원을 구성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학생회 운영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저희의 잘못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의 인력 부족이나 학과의 특성이 재정 운영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저 또한 그 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늦게나마 자료를 모두 공개했으며,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의 가장 큰 책임은 학생회장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각 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습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잘못의 성격과 현재까지의 시정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바꾸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반드시 회장단의 임기를 즉시 중단시키는 탄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 대표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 일을 단순히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재정 운용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회장인 제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앞으로의 운영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공연예술학과 학생회장단 탄핵 및 재정업무 담당 집행위원의 차기 학생자치기구 활동 자격 제한 안건 심의·의결

(1) 찬성: 126명

(2) 반대: 82명

(3) 기권: 46명

→ 과반수 이상 반대로 부결.

6) 첨단소재공학과

(1) 문제 사항 보고

- 심의·의결 증빙자료 미제출(경고 1회)
- 자료 제출 지연(주의 1회)
- 예산안 편성 기준 부적정(주의 1회)
- 집행사유 및 비교견적서 미비(주의 1회)
- 비교견적서 작성 기준 미준수(주의 1회)
-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한 결산 반영 미흡(주의 1회)
- 계좌 사용 절차 미비(주의 1회)
- 누적 주의 및 경고: 경고 4회

7)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소명

- ▶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윤상은입니다. 먼저 2026학년도 1학기 정기감사에 관련하여 여러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저희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는 총 6회의 주의와 1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적 결과 경고 4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지적받았는지, 그리고 각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심의·의결 증빙 자료 미제출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이나 증빙 자료를 충분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개강총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집중하다 보니 의결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보관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던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명확한 행정상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자료 제출 지연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월금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안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당시 저희는 이월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단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예산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을 사전에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견적서 작성 및 관련 증빙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물품이나 행사를 준비할 때 실제로 가격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등의 자료를 기준에 맞게 첨부하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가격을 비교했다라도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남기지 못했다면 그 역시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3월 31일 5만 원의 입출금 내역을 최종 결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해당 금액은 학생회에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회 계좌에 잘못 입금한 내역이었고, 이를 확인한 뒤 다시 반환한 거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이런 입출금 내역 역시 최종 결산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거래를 결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산 과정에서는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의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비 계좌와 특별회계 계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저희는 실제 업무에서 계좌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 사용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회장

회 부회장으로서 사전에 관련 규정을 더 충분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된 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임 재정 업무 담당자는 이전 학생회의 폐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인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임 회장단 역시 군 입대로 인해 직접적인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안·예결산 작성 방법이나 감사 자료 작성 기준, 그리고 계좌 사용 방법 등 실무적인 부분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학과 학생회와 선후배, 동기들에게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고 자료를 충분히 넘기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역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학생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각 문제가 발생한 경위 역시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감사 관련 규정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했고, 예산·결산 자료와 감사 자료, 예결산 자료와 감사 자료, 계좌 사용 내역과 각종 증빙 자료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입출금 내역을 결산 자료와 철저하게 대조하겠습니다. 회의록과 관련 자료도 반드시 보관하겠습니다. 학생회비 계좌와 특별회계 계좌 역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비교건적서 관련 증빙 자료도 기준에 맞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이 다음 학생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 절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차기 학생회장 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인수인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생회에서는 저희 같은 문제로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잘못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회장단 탄핵과 재정 업무 담당자의 차기 수행 자치기구 활동 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실 때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어려웠던 상황과 각 지적 사항들이 발생한 경위, 그리고 학생회비의 개인적인 유용이나 고의적인 회계 문제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회에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우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장단 탄핵 및 재정업무 담당 집행위원의 차기 학생자치기구 활동 자격 제한 안건 심의·의결

(1) 찬성: 83명

(2) 반대: 125명

(3) 기권: 45명

→ 과반수 이상 반대로 부결.

9) 태권도학부

(1) 문제 사항 보고

- 예산 전용 사유서 미제출(주의 1회)
- 예·결산안 변동사항 소명서 미제출(주의 1회)
- 자료 제출 지연(주의 1회)
- 비교견적서 미비(주의 1회)
-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경고 1회)
- 누적 주의 및 경고: 주의 1회 경고 3회

10) 태권도학부 학생회장 소명

- ▶ 태권도학부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태권도학부 제4대 학생회장 심재경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1학기 최종 감사 결과를 통해 학생회비 운영 및 예·결산 처리 과정에서 저희의 미흡했던 점 두 군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비를 운영하는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망하셨을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저희 학생회가 처했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주시고,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대표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번 저희 학생회는 태권도학부에서 처음으로 학생회비 계좌를 개설하고 학생회비를 기반으로 한 예산 운영과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생회까지는 학생회비 계좌와 예·결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충분한 인수인계와 참고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 습니다. 물론 이를 이유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회는 이러한 부족함을 보 완하고자 다른 학생회장님들과 감사운영위원회 측에 궁금했던 점들과 규정들을 논 의하였고, 감사하게도 모두 친절하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최대한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막상 학생회비 계좌를 운영해 보니 첫 학생회비 납부여서 그런지 실제 학생회비 수납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학생회 임원들이 낸 학생회비를 중심으로 이벤트를 운 영해야 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했던 예산을 변 경하거나 이벤트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산 전용 신 청서와 예·결산안 변동 사항 소명서 등 추가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들이 있었으나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차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 희가 확인하고 압축 파일로 압축한 형태로 제출을 하였으나, 일부 파일이 누락되 거나 손상되어 일괄 사본 및 거래 내역서 등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미제 출 처리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1차 감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감사운영위 원회 측에 문의를 드렸고, 감사운영위원회 측에서 보내준 영상을 확인해 보니 파 일이 실제로 깨져 있거나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2차 감사 때는 자료를 나누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희가 처음 학생회비를 운영하고 감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1차 감사를 통해 바로잡고 보완했어야 했지만, 제출 자료의 문제로 세부적인 지적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최종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저희 학생회의 미흡했던 부분까지 없어지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규정과 필요한 서류들을 충분히 확인하 지 못한 부분은 저희 학생회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에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무부 카톡방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감 사운영세칙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 개설 이후 처음 학생회비 계좌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자 했던 점과 1차 감사에서 보완할 기회 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점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시고 이번 처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 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상 태권도학부 제4대 학생회장 심재경이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11) 태권도학부 학생 임원 장학금 30% 감면과 일정기간 활동 및 예산 집행 제한 안건
심의·의결**

(1) 찬성: 95명

(2) 반대: 107명

(3) 기권: 51명

→ 과반수 이상 반대로 부결.

12) 총학생회

(1) 문제 사항 보고

- 심의·의결 증빙자료 미제출(경고 1회)
- 공개 기간 미준수(주의 5회)
- 이월금 금액 오기입(주의 1회)
- 잔액 오기입(주의 1회)
- 누적 주의 및 경고: 주의 1회 경고 4회

13) 총학생회 재정업무 담당 집행위원 소명

- ▶ 총학생회 재정업무 담당 집행위원 소명: 먼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재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증빙자료 일부 미제출, 추가경정예산안 공개 기한 미준수 그리고 이월금 잔액 오기입 오류가 지적되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자료를 받게 됐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을 받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했으며, 감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역시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더라도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고, 작은 부분까지 끝까지 챙겼어야 하는 것이 재정국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발생한 문제는 학생회비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발생한 문제도 아닙니다. 재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미흡함과 실수가 반복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작은 실수라도 반복되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잘못은 되돌릴 수 없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재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4) 총학생회 학생회장 소명

- ▶ 총학생회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제7대 총학생회장 이수진입니다. 먼저 이번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저희 총학생회장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 학생대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학생회장단은 이번 정기감사에서 주의 1회, 경고 4회의 결과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단위가 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저희의 관리와 확인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국의 업무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장단 차원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단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 관련 업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공개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월금과 잔액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재정국장님 소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홈페이지 업로드 요청을 놓쳤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했으며, 감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역시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재정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업무상 미흡이었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회장단 역시 그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국이나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전체의 업무 관리 체계와 회장단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각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총학생회장단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탄핵이라는 중대한 처분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의결 증빙자료 미제출의 경우, 심의·의결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당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이월금액 및 잔액 오기입 역시 재정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회장단의 재정 관리와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개 기간 미준수의 경우에는 동일한 감사항목에서 총 5건이 확인되었으며, 현행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각 누적되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저희 역시 현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감사 결과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저희 역시 현재의 감사 및 징계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의 횟수뿐만 아니라 행위의 유형과 고의성 여부, 과실의 정도, 재정적·행정적 영향, 사후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징계양정의 기준과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총학생회장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음 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논의하고, 감사운영위원회에도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적사항의 누적을 넘어, 각 사안의 실질적인 중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감사·징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회장단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탄핵은 그 판단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학생사회를 대표할 권한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단순히 징계 횟수의 누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 행위의 고의성 및 과실 정도, 학생사회에 미친 영향과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 일을 단순히 하나의 감사 결과로 끝내지 않고 총학생회 내부의 업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총학생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긴 시간 소명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 총학생회 학생회장단 탄핵부의안 및 재정업무 담당 집행위원의 차기 학생자치기구 활동 자격 제한 안건 심의·의결

(1) 찬성: 141명

(2) 반대: 72명

(3) 기권: 40명

→ 1/3 이상 반대로 부결.

XIV. 기타 안건

1) 본 회의에서는 논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별도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음.

X V. 폐회(22:04)